

# 남자 친구가요...

신기숙(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성폭력상담 소장)



안녕하세요~

이제 고3이 되는 여학생이데요. 사권지 한 100일 되는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한번 깨졌다가 다시 사귀는 거라 지금 서로 무지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데...지난번에 조금 후회스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서로 안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가슴을 만지더라구요. 가만히 있었는데... 속옷안으로 손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리고 혀로도 애무하고 하여간에 좀 그랬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싫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랑 저는 상당히 얘기를 트고있어요. 좀 성적인 얘기도 그냥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싫다기 보다는 만약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애랑 깨졌을때 어떻게 될지 겁나기도 하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성적인 접촉이나 대화들을 나누고 있군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싫지 않지만 나중에 깨질걸 생각하니까 여러가지 두려움이 생기나 보군요.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친구란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는 감정에 휘말리기 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가올 일들 까지 생각할 수 있는 친구라면 자신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한발 앞을 생각해서 행동할 수 있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자신을 조금씩 조절하고 통제할때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성적인 접촉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관계로 성숙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는 관계로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성접촉까지는 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좋은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임  
 질 수 없는 성접촉까지는 하지 않아야 하  
 겠지요.

자신의 솔직한 고민을 터놓고 좋은  
 관계로, 서로 격려해 주고 아껴주는  
 관계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이 이  
 성교제를 하면서 가장 많은 갈  
 등을 겪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  
 된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  
 앞에서 남학생은 직접적 성적  
 접촉이 확실한 표현방법이라면  
 서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했  
 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뭔가 해줘야 할 것 같  
 은 압력과 정신적 부담감으로 자  
 신을 내맡긴 뒤 후회하는 여학생들을 자  
 주 접하게 된다.

남자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란 변명을 해 보지만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상처만 남는 교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럴때 “네가 그런 행동을 하니 이런  
 점이 부담되고 힘이 들어.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는 용

기가 필요할 것 같다.

사랑은 신체적 접촉에서 얻는 것보다 서로를 생  
 각하고 배려하고 신뢰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성  
 속시켜 나갈 때 더욱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을 배웠으면 한다. **2021.5**